

서효인의 ‘소설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전역에는 꽤 많은 곰이 살고 있다. 대부분 반달가슴곰으로 1981년 재수출 및 약재 사용 등의 목적으로 동남아 등지에서 수입된 곰의 개체가 400마리 가깝게 남아 있는 것이다.

한때 곰 쓸개가 몸에 좋다고 하여 찾는 이가 많았다. 웅담을 만드는 과정은 상상 이상으로 잔혹하다. 곰이 느끼는 고통 또한 그러할 것이다. 다행히 웅담을 대체할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되면서 수요가 급격히 줄었다고 한다. 그간 발전한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도 한몫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 남은 곰들은 사육 농가에서 남은 생이 다하길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다. 정책적으로 증성화가 되었다고 하지만, 불법 증식되는 경우도 허다하여 우리를 탈출한 어린 곰에 대한 소식도 종종 듣게 된다.

최근 경기도 용인시에서 태어난 지 3년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곰 두 마리가 탈출하여 한 마리는 사살되고 다른 한 마리는 여대 추적 중이라는 뉴스가 들렸다. 먹이를 찾아 산을 헤매는 곰은 분명 근처의 사람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존재다. 그러나 동시에 태어나자마자 좁은 우리에 갇혀 타고난 본능 같은 것은 인간에 의해 억압되어 버린 가엾은 야생동물이기도 하다.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동물의 삶을 지옥에서의 삶으로 격하시켜 왔다. 저 멀리 아프리카 초원이나 아마존 밀림까지 시선을 돌릴 필요도 없

이, 열악한 축사에서 고기가 될 목적으로만 키워지는 돼지와 소, 그리고 인간의 외로움을 달래 주다 종종 버려지곤 하는 개와 고양이들 보라.

그림책 작가로 먼저 알려진 루리 작가의 ‘긴긴밤’은 제21회 문학동네어린이문학상 대상을 수상하면서 출간되었다. 이 소설은 어린이 대상의 문학답게 우선 우화의 형식을 빌린다. 코끼리 고아원에서 자란 코뿔소와 어미 아비를 알 수 없어 이웃 펭귄에게서 보호받아 태어난 펭귄의 이야기다. 뜨겁고 광활한 초원을 바람처럼 달릴 수 있는 코뿔소와 차갑고 거대한 바다를 바람보다 더 빨리 헤엄칠 수 있는 펭귄이라니… 본래의 서식지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그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은 단 하나다. 인간이 만든 동물원이다. 인간이 여러 동물을 데려와 가둬 놓고, 보호하고, 구경하는 동물원.

노든에게는 가족이 있었다. 세상에 얼마 남지 않은 흰바위코뿔소인 노든은 아내를 만나고 딸을 낳았으며, 진정한 코뿔소로서 자연을 영유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다. 인간은 그런 노든을 가만두지 않는다. 밀렵꾼은 그들의 뿔을 갈탈하고, 생명을 앗아 간다. 노든의 가족은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고 노든 혼자 다른 인간들에 의해 구조돼 치료받는다. 그리고 동물원에 갇히게 된다.

화자인 ‘나’는 누구의 것인지 알지 못하는 일을 거두어 보호한 펭귄 ‘치쿠’와 ‘웜보’에 의해서 태어날 수 있었다. 세상에 나온 펭귄의 곁에는 늙은 코뿔소 노든밖

에 없다. 노든과 치쿠가 그랬듯 둘은 바다를 향해 걷는다. 포기하지 않고 위험에 맞서며 혹은 슬기롭게 피하며 동행하는 둘의 긴긴밤은 빛나는 우정의 서사이자 마음 졸이는 로드무비이며 가슴 찡한 다큐멘터리가 된다.

심사평에 나오는 말처럼 ‘긴긴밤’의 화두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근원적 질문이다. 긴긴밤을 며칠이나 보내도 해결할 수 없는 난제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물은 저 질문의 답을 알고 있다. 알고 있어도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다. 코뿔소는 자신이 코뿔소임을, 펭귄은 자신이 펭귄임을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이기심과 한심함에 답을 찾는 여정은 한없이 구불구 불해지고 희미해진다.

어떤 인간은 좋은 사람이 되어 동물을 돌보고 보호하려 애쓰기도 하지만, 소수의 노력이 상황을 반전시키리라 쉽지 않다. 대체로 약한 인간과 더러 착한 사람이 배경인 세계에서 늙은 흰바위코뿔소와 어린 펭귄은 기적을 만들 수 있을까? 코뿔소는 코뿔소로, 펭귄은 펭귄으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탈출한 곰 두 마리 중, 아직 수색 중인 한 마리의 곰에게 어떤 결말이 있을지 짐작은 할 수 있다. 곰은 곰이길 원하겠지만, 인간에게 곰은 이미 곰이 아니다. 사육장에 갇힌 곰, 인간의 총에 쫓기는 곰은 원래의 곰이 아니니까. 뉴스 이후 긴긴밤이 몇 번이나 지났다. 곰에게는 특히나 긴긴밤이었을 것이다.

의료칼럼



박정희
다케반플란트치과 원장

밀레니엄 시대라 불리며 뭔가 엄청난 기술의 시대를 기대하던 2000년이 벌써 21년이나 지나갔고, 인공지능 알고라고 인간계 바둑 최고수를 이긴 게 벌써 몇 년 전이다. 바야흐로 디지털 시대이다.

치과에 디지털 기술이 쓰인 것은 이미 오래되었다. CT라 불리는 컴퓨터 단층촬영은 치아와 주변 치조골의 3차원적인 이미지를 재현하여 컴퓨터상에서 원하는 대로 단면을 볼 수 있게 해 주었다. 이를 통해 정밀한 수술을 가능하게 했고, 무엇보다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의 범위를 최소화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비용이었는데 불과 10년 전만 해도 큰 규모의 병원에서만 볼 수 있었던 CT 장비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웬만한 의원에서도 쓸 수 있을 만큼 보급되었다.

CT가 치과계의 디지털 시대를 여는 시작이었다면 지금은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디지털 장비들이 있다. 기존에는 알지네이트나 실리콘을 이용해서 치아의 본을 뜨던 것을, 현재는 구강 스캐너를 이용

치과도 이제는 디지털 시대

하여 직접 3차원 데이터로 만들어 전송할 수도 있고, 과거엔 가공사가 일일이 손으로 만들던 보철물을 이제 컴퓨터로 설계(CAD)하고 밀링머신으로 다듬어내는(CAM) 과정을 통해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치과용 CAD 소프트웨어는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과 시뮬레이션 기능에 집중돼 있다. 디지털 진단 정보수립 과정부터 진단·치료 계획 수립·제조 과정을 하나의 워크플로우(작업 흐름)로 묶어 운영되는 클로즈드(closed) 시스템 플랫폼에서 진료 과정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과, 디지털 진단 정보데이터를 자유롭게 입력하고 기존 데이터와 통합할 수 있는 오픈(open) 시스템이 존재한다.

CT와 구강 스캐너를 접목하면 임플란트 수술 전에 모의 수술을 통해 정확한 위치와 깊이, 임플란트의 사이즈 등을 정해 두고 바로 계획된 그대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스텐트(일명 네비게이션 임플란트) 등을 3D 프린터를 이용해 미리 제작할 수도 있게 되었다. 그 범위가 점점 더 넓어져서 기존에는 한두 개 치아 크기의 보철물 제작에 그쳤었는데, 지금은 틀니 전체를 통째로 제작하는 기술로까지 발전되고 있다.

치아나 뼈의 모양을 읽어주는 CT뿐만 아니라 얼굴 전체 모양을 3차원으로 읽어서 교정 전과 예상되는 교정 후의 모습을 미리 시연해 보는 장비도 소개되고 있다.

물론 디지털 기술이 완벽하지는 않다. 디지털 경험자들은 “어떤 스캐너를 선택하든 적응과 숙련 과정은 필수”라며 “숙련 과정을 거쳐 능숙하게 구강 스캐너를 사용할지라도 각 진료 상황에 맞는 조력자들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구강 스캔 데이터를 이용해 보철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치과기공사와의 소통도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기술은 지금도 계속 발전해 가고는 있지만 과거에 숙련된 의사와 기공사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물들을 아작은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은 디지털화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줄여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그 속도가 매우 빨라서 작은 범위의 보철물들은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할 것이고, 자연히 오차 범위가 더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변화지 않는 사실은 디지털을 다루는 것은 사람이라는 점이다. 숙련된 사람이 사용했을 때 그 기술은 더 빛을 발한다. 디지털의 장단점을 알고 그것을 적절적소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은 디지털을 이용하는 사람의 지식과 숙련도, 그리고 쌓인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다.

세상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화는 거스를 수 없게 흐름이 되었다. 아직은 의료계에서 100% 디지털 치료란 있을 수 없지만 환자와 의사의 소통 속에 계획된 치료를 도와주는 디지털 기술은 치료의 성공률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것이다.

2020 도쿄올림픽의 교훈

손실을 점치고 있다고 한다. 이쯤 되면 도쿄올림픽은 올림픽의 저주 그 이상이다.

메가스포츠 대회는 현장성과 수천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의 인구 이동이 있다. 그만큼 대회가 흥행하면 메가투금의 지역사회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유치 인기도 높았다. 또한 올림픽 개최는 선진국의 상징으로 국가적인 위상과 역량을 전 세계에 과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고도 올림픽을 유치하고 치를 충분한 명분이 있었다. 70년대~90년대까지의 이야기다. 2000년 이후 시대가 변했다. 2016년까지 평균 9.5개였던 올림픽 개최 희망 도시 수는 2020년에는 평균 5개로 줄었고, 2024년에는 5개 도시가 신청했으나 국민의 극렬한 반대로 결국 2개 도시만 올림픽 입찰에 응했다. IOC는 손님을 잃지 않기 위해 24년 파리, 28년 LA를 동시 결정하는 특단의 결정을 내렸다.

국제스포츠대회에 대한 시대정신도 변했다. 과거 국제대회 유치 평가의 중대 지표였던 8~10만 석의 대규모 관람이 가능한 경기장 규격과 대규모 숙박시설 등에서 지속 가능성과 레거시를 더욱 중시하는 추세다. IOC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부터는 레거시 계획 제출을 의무화했다. 2013년 취임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제안한 ‘올림픽 어젠다 2020’과 올해 초 IOC 총회에서 의결한 ‘올림픽 어젠다 2020+5’가 담고 있는 핵심적 내용도 결국은 올림픽의 지속 가능성에 맞춰져 있다. 대회를 개최한 지역사회에 그리고 스포츠의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만들지 못한다면 메가 이벤트의 존재 이유가 위협받기 때문이다.

레거시는 대회 개최 이후에 남기는 유산이란 오해가 있다. 그것은 레거시에 대한 큰 착각이다. 레거시는 국제대회의 유치 단계에서부터 대회가 끝난 이후까지 국제대회를 관통하는 중요한 어젠다다. 지역사회, 국가, 세계 등 범주에 따라 또는 경제적·사회적·스포츠적·환경적 측면 등 각 분야에 따라서 다양한 무무형의 레거시를 기획하고 실현하는 과정이 결국 국제 메가 이벤트를 준비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또 한 가지 추세는 감염병을 변수가 아닌 상수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 때는 메르스, 2016 브라질 올림픽은 자카 바이러스가, 그리고 2020 도쿄올림픽은 코로나가 엄습했다. 방역에 따른 조치와 비용을 미리 생각해야만 한다. 더불어 감염병 상황에서도 중단없는 스포츠 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AR이나 VR을 적용한 기존 스포츠 종목의 비디오화를 대안적으로 고려하는 것도 지속 가능한 스포츠활동을 잇기 위한 교육정책이다.

최근 국내 광역지자체들이 잇따라 국제스포츠대회 유치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도쿄올림픽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광주와 대구가 2038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의사를 밝혔다. 이에 앞서 세종·대전·충남·충북 등 4개 광역 시도는 2027 충청권 세계대학경기대회 공동 유치를 결정하고 유치 활동에 돌입했다. 코로나 이후 스포츠계의 뉴 노블을 파악하고, 스포츠 세계의 변화를 고려한 현명한 유치가 필요하다. 지역사회에 아무 것도 남기지 않는 국제스포츠대회는 무익하다. 이번 도쿄올림픽은 팬데믹 이후 국제스포츠의 뉴 노블을 미리 만나는 좋은 교훈의 장이 될 것이다.

社說

광주 ‘거리 두기 2단계’ 불편해도 참고 전디자

코로나 확산이 심상치 않다. 전국적으로 연일 10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수도권이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광주 지역도 오늘부터 2단계에 들어간다.

정부는 6월 중순만 해도 거리 두기 완화와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을 예고하는 등 낙관적인 전망을 내놔다. 하지만 이러한 예측과 달리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코로나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조강수를 뒀다.

광주·전남의 경우도 코로나 확산에 따른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정서를 반영하듯 광주 시내 곳곳의 선별 진료소는 장사진을 이룬다. 당국은 수도권 시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며 감염되는 ‘풍선 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업무차 전남에 온 경기도 확진자에 의해 함께 회의를 했던 4명이 감염되고 여주시장

또한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되기도 했다.

격상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사적 모임 인원수 제한, 유흥업소 등의 영업시간 제한 등 시민들의 일상을 규제하게 된다. 그렇지만 방역 정책의 헌선과 백신 공급 부족 속에서 현재의 코로나 상황을 타개하고 지역사회 유행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방역 당국은 소신 있는 방역 정책과 차질 없는 백신 접종으로 사태 확산을 막아야 한다. 또한 시민들은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와 같은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른 일상의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여름휴가 역시 비대면 여행과 같은 차선책을 택하면서 코로나 확산 억제를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지역 사회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양향자 의원 제명과 성범죄 2차가해의 심각성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인 어제 자진 말당했다. 자신의 지역사무소 직원이 저지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를 했다는 사안으로 당 윤리심판원에 제명 결정을 받은 지 하루 만이다. 하지만 절차상 양 의원의 제명은 탈당과 함께 그대로 확정되게 된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의 신분은 민주당에서 무소속으로 바뀌게 됐다.

이에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양 의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그 배경으로 언론 인터뷰에서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말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가해 행위의 중대성과 함께 피해자에게 취업 알선을 제안함으로써 회유를 시도한 점 등도 꼽았다. 양 의원의 사촌이자 지역사무소 직원 A씨는 동료 여직원을 수개월 동안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어제 구속됐다.

이처럼 호남 유일의 여성 국회의원인 양 의원이 당적을 잃게 되면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정가에도 파장이 일고 있다. 양 의원은 이날 입당문을 통해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고,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드린 점 거듭 사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전자 최초의 고졸 여성 임원이라는 신화를 써 온 양 의원이 21대 국회에 입성한 지 1년여 만에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당적을 잃게 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 무엇보다 친인척 보좌관의 성범죄 의혹에 대해 엄청난 대처는커녕 ‘성폭행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언론에 말했다가 당으로부터 ‘2차 가해성 발언을 자제하라’는 경고까지 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동안 광역 자치단체장들의 잇따른 성추행 사건으로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긴 민주당 역시 이 과정에서 제 역할을 다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조직 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고 성차별적 제도를 개선하는 등 ‘권력형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無等鼓

피아니스트이자 명지회자인 다니엘 바렌보임의 연주를 들을 때면 좀 복잡한 마음이 든다. 유려한 피아노 연주에 빠져들다가도 순간순간 불행했던 한 여성의 얼굴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바로 바렌보임의 아내 자클린 뒤 프레다. 첼리스트였던 그녀가 다발성 경화증에 걸려 연주 인생을 접고 외롭게 투병할 때 남편은 다른 여성을 만나 뒤프레를 떠났다. 결국 20세기 최고의 첼리스트 중 한명이었던 그녀는 이후 병세가 악화돼 쓸쓸한 죽음을 맞는다.

바렌보임을 생각하면 또 한 사람이 떠오른다. 바로 피아니스트이자 첼리스트로 활동한 하행

해 온 ‘오리엔탈리즘’의 저자 에드워드 사이드다. 이스라엘에서 성장한 유대인 바렌보임과 팔레스타인 출신인 사이드는 음악을 매개 삼아 두 나라의 공존과 화합을 기원하는 평화 프로젝트로 ‘서동시집 관현악단’(West-Eastern Divan Orchestra)을 창단했다. 1999년 고티에의 시집(詩集)에서 이름을 따 창단한 이 오케스트라는 ‘물과 기름’같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과 시리아 등 아랍국가 청년들로 구성됐다. 지난 2011년에는 판문점에서 베토벤의

‘합창’을 연주하며 화합의 평화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최근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핀커스 주커먼이 인종 차별적 발언을 해 비난을 받고 있다. 그는 얼마 전 뉴욕에서 열린 온라인 마스터 클래스에서 아시아계 학생 2명을 가르치던 중 “일본과 한국은 노래하는 DNA가 없다”고 말했다. “중국인은 빨리 연주하면 최고인 줄 안다”고 차별적 발언을 한 모습이 담긴 또 다른 영상도 있다. 논란이 되자 그는 “문화적으로 둔감한

언급이었다.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그가 하를라가 지행한 인종차별 정책으로 가장 고통받았던 유대인 출신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의 애초 발언은 더더욱 적절치 못했다는 생각이다.

바렌보임은 “음악이 세상을 바꿀 수 없겠지만 그 시작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적으로 화합과 이해가 필요한 시기에 그런 음악을 들려주고 또 가르치는 이가 차별과 경계와 분리를 조장한다면, 그가 아무리 뛰어난 연주를 들려준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할 것이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기 고



배미경
대구경매 대표·호남대 초빙교수

도쿄올림픽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오론깃발 아래 전 세계가 하나 되는 축제의 설렘도 흥분도 즐거움도 없다. 오히려 두려움과 걱정이 앞선다. 개최지 도쿄는 코로나 상황이 심화하자 지난 8일부터 6주간의 긴급사태를 발령했다. 결국 도쿄올림픽은 개막하는 7월 23일부터 8월 8일 폐막 때까지 코로나 긴급사태 속에서 치러지게 되었다.

올림픽 흥행의 하이라이트 역할을 하면서 전 세계를 열광시킨 성화 봉송도,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시작을 알리는 선수촌의 입촌식도 사라지고, 도쿄도 내에서 치러지는 전 경기는 무관중으로 전환했다. 올림픽 취재자 입국한 한국 기자단의 전연에 따르면 분쟁국을 취재하는 삼엄한 분위기가까지 연출된다고 하니, 올림픽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해 이미 한 차례 연기되면서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졌고, 시설의 사후 유지 관리에 대한 비용 지출은 늘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한 지출도 추가되었다. 한 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경제학자들은 무관중 개최로 민간 소비 손실로 인한 국내 생산 감소, 실업자 5만 명 증가 등 1조 5000억 원의 경제적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집 부 220-0649 지 부 220-0632 체 부 220-0663 회 부 220-0652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에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체 육 부 220-062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